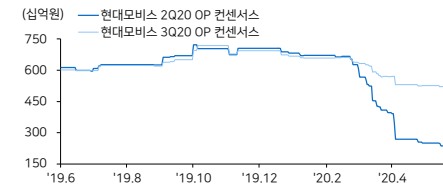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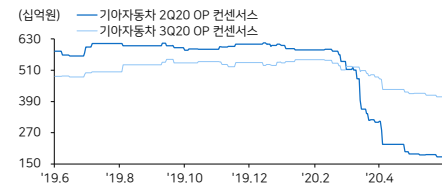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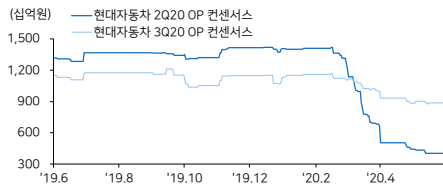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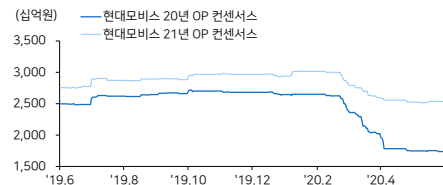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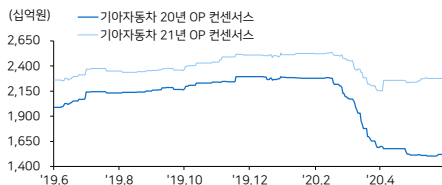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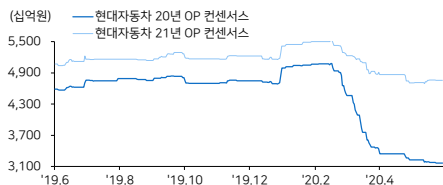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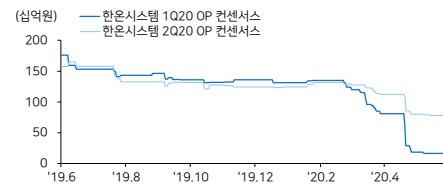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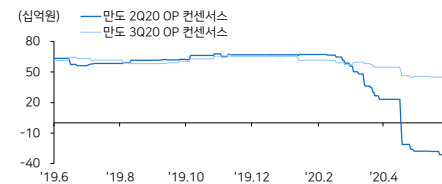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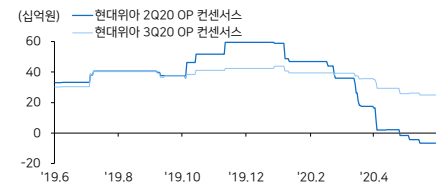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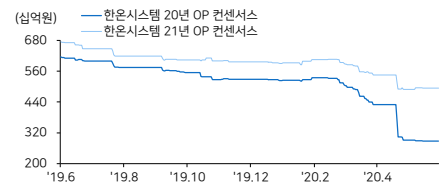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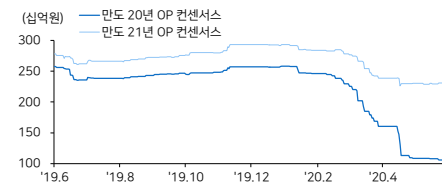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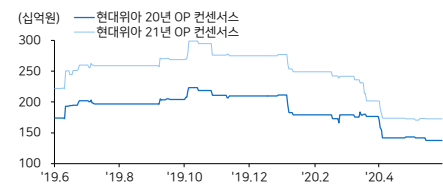


##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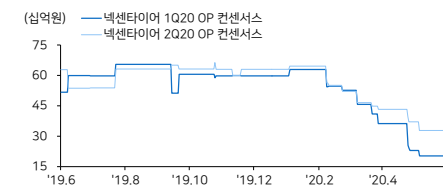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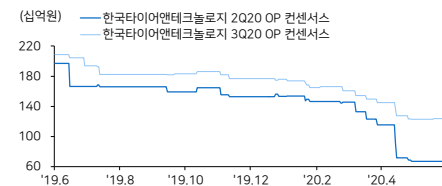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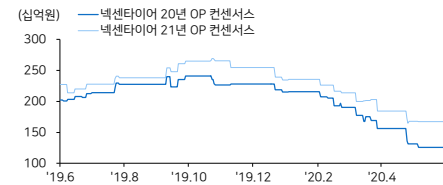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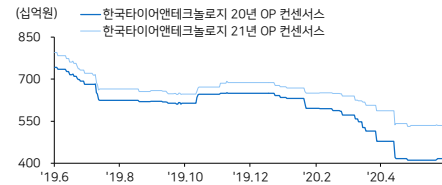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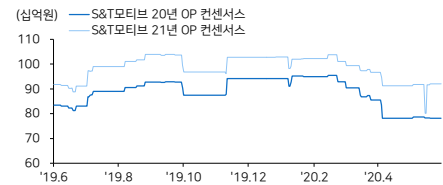
###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 기아차 4세대 카니발 외장 공개...더 길고 넓어져 (조선비즈)

이날 기아차가 따르면 4세대 카니발 외장은 '웅장한 볼륨감'을 주제로 디자인될 예정이며, 앞부분은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강조했고 옆부분은 독창적인 디자인 요소를 넣어 고급스럽고 단단한 느낌을 낸다.  
<https://bit.ly/2ZAU5rs>

### 현대차·한화시스템 "한국이 '도심항공' 문 열었다" (머니투데이)

국토교통부는 도심항공교통 분야 40여개 기관·업체가 참여하는 'UAM 팀 코리아'를 발족하고 참여기관 간 MOU를 체결. 이는 지난 4일 정부의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  
<https://bit.ly/31dxXez>

### 정부, 친환경차 사업 전환 등 10개 사업재편계획 승인 (ZD넷코리아)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신산업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기업활력제 사업재편 사업'에서 신산업 진출 유형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10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최종 승인.  
<https://bit.ly/3eBdk9a>

###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자동차 공장, 대부분 정상 가동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로 생산이 중단됐던 글로벌 자동차 공장들이 대부분 조업을 재개한 것으로 조사됨.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해외 주요 자동차 생산국의 브랜드별 공장가동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가동공장 비율이 96.8%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힘.  
<https://bit.ly/2YtOwdy>

### 코로나 위기에... 현대차 노조, 상생 택했다 (동아닷컴)

현대차 경영진과 노조는 고용안정위 품질세미나를 열고 '품질혁신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을 발표. 공동선언에는 고객만족을 위해 품질 수준을 높이고 시장 수요에 맞춘 차량을 우선 생산하기 위해 노사가 협력하자는 내용이 담김.  
<https://bit.ly/2Z4Zs0u>

### 현대모비스, 차세대 차량-외부 통신 제어기술 국내 첫 개발 (국민일보)

현대모비스가 자동차와 사람, 사물, 인프라를 초고속 통신망으로 연결하는 차세대 차량-외부 통신 제어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 차량과 운전자의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통해 안전과 편의 제공의 폭을 넓힐것으로 기대됨.  
<https://bit.ly/2Z4Zs0u>

### 내연기관 퇴출 EU '수소 집중 투자'...현대차 수소상용차 눈독 (뉴스인)

EU가 예상했던 대로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불황 해법을 수소에서 찾는 모습. EU는 7월 8일 수소 육성전략을 발표할 예정. 최근 독일이 12조5000억원 규모의 수소 육성전략을 발표하며 이어 EU 차원에서 전격적인 지원에 나섬.  
<https://bit.ly/3exuk06>

### \*새차 사려면 '클릭'하세요, 자동차도 온라인 판매에 대세 (매일신문)

미국 최대 자동차 판매 체인 오토네이션은 최근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최근 오토네이션 판매 중 45% 정도가 온라인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디지털 측면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불가역적 반작용이 될 것"이라고 밝힘.  
<https://bit.ly/3erE3oy>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